

간호 대학생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반선화¹, 배두이², 장경오^{1*}

¹와이즈유(영산대학교) 간호학과, ²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The Impact of Humanity,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College adaptation

Seon-Hwa Ban¹, Du-Yi Bae², Koung-Oh Chang^{1*}

¹Department of Nursing, Y'sU(Youngsia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ongw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 수준을 알아보고, 인성,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Y시 소재 D대학 간호 대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통계 방법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one way ANOVA,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대학적응은 인성($r=.540, p<.001$), 의사소통능력($r=.534, p<.001$) 그리고 대인관계능력($r=.41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로 분석 한 결과, 인성($\beta=.288, p=.002$), 의사소통능력($\beta=.248, p=.008$) 그리고 대인관계능력($\beta=.143, p=.049$)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3.6%이었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의 학업적 부담감과 국가시험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중도 탈락을 줄이고 대학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며,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간호 대학생을 위한 공동체 기반의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humanity, communication skill,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ollege adaptation levels of nursing students and the impact of humanity,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ollege adaptation. The research method targeted 181 nursing students at D University located in Y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1 to September 15, 2023.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WIN 25.0. College adapta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humanity ($r=.540, p<.001$), communication skills ($r=.534, p<.001$),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r=.410,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howed humanity ($\beta=.288, p=.002$), communication skills ($\beta=.248, p=.008$),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beta=.143, p=.049$) significantly affected college adaptation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3.6%. The study identifies a need to develop a community-based, customized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to reduce dropout rates associated with stresses such as academic burden and national exams and to improve college adaptation and stud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Keywords : Communication, Ability, Competence,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Koung-Oh Chang(Youngsian Univ.)

email: chko1015@ysu.ac.kr

Received October 24,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Revised November 1, 2023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국내 대학들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고등교육 시장의 불활성, 입학생 감소 및 중도이탈 증가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1]. 대학생은 인간 발달의 단계상으로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등을 취하면서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된다[3]. 또한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급격한 개인적 및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며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4]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게 된다. 간호 대학생의 경우에도 대학생활 과정은 교양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전공과정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졸업 후에 다양한 임상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간호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5]. 하지만 간호 대학생들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 있는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임상실습 병행과 더불어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5,6].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 혼란과 긴장, 이상과 현실, 개인과 사회, 인생의 질과 의미, 진로와 전공,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에[7] 휩싸이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 대학생은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인성(character)이 무엇보다 필요하다[8].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나 개인의 사고와 태도, 행동의 특성으로 정의되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격(moral personality)으로 일반적으로 가치 지향적 의미를 지닌다[9].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차원에서도 대학생들의 인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10].

Park [11]은 연구에서 인성이 부족할 경우 대학생활에 대한 소극적 태도, 낮은 학업성취로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간호 대학생의 경우에도 임상현장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간호하면서 그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호사인 의료인으로 성장하게 된다[12]. 특히 간호 대학생은 책임감과 윤리의

식을 포함한 개인적 도덕성과 배려, 공감 능력을 갖추고 인간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이는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향후 간호 대학생의 올바른 태도는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이 과정에 간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환자를 대하고 간호하며, 보호자와 다른 분야의 의료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능력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의 맥락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14]. 간호 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익숙하지 못한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다양한 연령 및 사회계층의 환자와 보호자, 여러 분야의 의료인들을 만나 상호작용으로 응대하면서 실제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5].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대상자 간호와 관련되어 정보가 필요한 병원 조직 내의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과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또한 환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간호업무 수행과 환자 중심의 정보를 서로 나누는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량[16]이라 하겠다.

간호 대학생에게 의사소통능력 이외에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인관계능력이다. 간호 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환자와 보호자들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능력이 더욱 요구된다[17]. 간호 대학생에게 대인관계능력은 간호사가 되어도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맺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18]. 이러한 간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며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직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 동안 함양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17].

이처럼 간호 대학생의 경우에도 여느 대학생들과 같이 인성,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간호학과 차원의 프로그램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동기부족,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 전공학습 및 진로 관련 고민, 유대감 및 소속감 부족 등으로 대학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1].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해[5] 복합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요청된다. 이에 앞서

간호 대학생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에 대해 확인하고, 그 수준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인성과 회복탄력성, 학습동기, 학생참여관련 연구[10],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2], 학교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효과[19], 공동체 기반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1] 등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학생삶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적응[5,20], 임상수행능력[16] 및 대인관계능력 [17]이 대부분으로,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삶스트레스와 적응에 영향을 주며, 임상실습 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향후 의료인인 간호사로 성장해 갈 간호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인성과 대학적응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에게 필요한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에 대해 파악하고, 의료인인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 대학생의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에 대해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 수준을 알아보고, 인성,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Y시에 소재하는 D대학 간호학과에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게시판을 이용한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을 희망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구목적과 절차, 연구윤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프로그램을 사용하여 Kwag[17]의 연구에서와 같이 중간정도의 크기를 근거로 회귀분석(예상독립 변수 11)으로 검증력을 산출하였다. 양측검증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 5, 검정력 0.95으로 하였을 때, 표본 수는 178명이었으나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96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응답이 불충분한 하거나, 미흡한 자료 15부를 제외하고 181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전체 탈락률은 7.7%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인성

본 연구에서 인성은 Kim [21], Chung 등[22], Park 과 Huh [23]가 개발 및 타당화 한 측정도구를 대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Jung [1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 [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 .94이었다.

2.3.2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Navran [24]가 개발한 PCI(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Mo [25]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Choi [26]의 연구에서 다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의 5점 Likert 척도로 역문항(8, 16)은 총 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Mo [2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9, Choi [26]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89이었다.

2.3.3 대인관계능력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Park, Seol와 Cheon [27]이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거친 대학생용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1개 문항으로 자신감, 타인지향, 신뢰감 형성, 상호작용관리, 자기표현으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역문항(1, 2, 3, 4, 5, 6, 7, 20, 21, 23, 24, 25, 26, 27, 28)은 총 16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89$ 이었다.

2.3.4 대학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적응은 학생의 대학적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Kim과 Kang [28]이 개발하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거친 도구를 Kim [2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학업적응 5문항, 인간관계적응 5문항, 환경적응 5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9]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 .91$ 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Y시 소재의 D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Y대학 생명윤리위원회 IRB(승인번호 : YSUIRB-202310-HR-138-01)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고, 연구 기간 동안 윤리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였다. D대학 간호 대학생에게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자료수집에 앞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익명성과 비밀보장, 연구 결과의 제한적 활용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는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연구불참 및 참여 철회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할 것이며, 보관기간이 끝나면 데이터 삭제 및 소각 방법으로 폐기할 것이다. 자료수집 시간은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5.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유의수준 5% 이하에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참가자 181명으로, 평균연령은 25.43세였으며 20~24세가 114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자가 176명(97.2%)으로 많았으며 학년은 4학년이 108명(59.7%)으로 많았다. 형제관계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가 175명(96.7%)으로 많았으며, 형제 중 순이는 만이가 90명(4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138명(7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태는 중인 경우가 159명(87.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부모 결혼상태는 결혼이 156명(86.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yr)	20 ~ 24	114(63.0)
	25 ~ 29	39(21.5)
	30 ~ 34	11(6.1)
	35 ~ 39	9(5.0)
	40 ≤	8(4.4)
Average	25.43 ± 5.52	

Gender	Men	5(2.8)
	Women	176(97.2)
Grade	Grade 3	73(40.3)
	Grade 4	108(59.7)
Sibling relationship	Only child	6(3.3)
	Has siblings	175(96.7)
Rank among brothers	Eldest	90(49.7)
	Middle	22(12.2)
	Youngest	69(38.1)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138(76.1)
	Living alone, lodging	20(11.0)
	Dormitory	8(4.4)
	Etc	15(8.3)
Economic status	High	7(3.9)
	Middle	159(87.8)
	Low	15(8.3)
Parents' marital status	Marriage	156(86.2)
	Divorce	13(7.2)
	Widowhood	12(6.6)

평균점수는 점수범위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으로 3.80±0.44점,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점수는 점수범위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으로 3.63±0.48점 그리고 대학적응의 점수는 점수범위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으로 3.87±0.5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subject's Humanity,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and degree of university adaptation

Variable	Range	M±SD
Humanity	0-5	4.11±0.55
Communication skills	0-5	3.80±0.44
Interpersonal competence	0-5	3.63±0.48
College adaptation	0-5	3.87±0.56

3.2 대상자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 정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성 평균점수는 점수범위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으로 4.11±0.55점, 의사소통능력의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 차이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성, 의사소통능

Table 3. Differences in personality,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and college adaptation according to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Humanity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College adaptation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Age (yr)	20 ~ 24	4.17±0.05		3.84±0.05		3.66±0.05		3.86±0.05	
	25 ~ 29	4.02±0.09		3.77±0.08	0.62	3.63±0.08	0.58	3.93±0.90	
	30 ~ 34	3.98±0.17	1.06	3.64±0.15	(.379)	3.67±0.15	(.646)	3.71±0.17	(.819)
	35 ~ 39	3.91±0.18		3.69±0.16		3.51±0.16	(.679)	3.79±0.19	
	40≤	4.10±0.19		3.81±0.17		3.43±0.17		3.87±0.20	
Gender	Men	4.09±0.25	0.01	3.58±0.22	1.05	3.62±0.22	0.01	3.49±0.25	2.29
	Women	4.11±0.04	(.936)	3.81±0.04	(.307)	3.63±0.04	(.946)	3.88±0.04	(.132)
Grade	Grade 3	4.12±0.07	0.06	3.82±0.06	0.16	3.72±0.60	4.08	3.84±0.07	0.31
	Grade 4	4.10±0.05	(.084)	3.79±0.05	(.688)	3.58±0.05	(.045)*	3.88±0.05	(.577)
Sibling relationship	Only child	4.11±0.22	0.01	3.68±0.20	0.40	3.46±0.20	0.83	3.78±0.23	0.15
	Has siblings	4.11±0.04	(.988)	3.81±0.04	(.529)	3.64±0.04	(.364)	3.87±0.04	(.699)
Rank among brothers	Eldest	4.07±0.06		3.78±0.05		3.61±0.05		3.83±0.06	
	Middle	4.31±0.12	1.70	3.88±0.10	0.34	3.64±0.10	0.21	3.99±0.12	0.75
	Youngest	4.10±0.07	(.186)	3.81±0.06	(.715)	3.66±0.06	(.814)	3.88±0.07	(.472)
Housing type	Living with parents	4.14±0.05		3.84±0.04		3.67±0.04		3.92±0.05	
	Living alone, lodging	4.00±0.12	0.88	3.68±0.11	0.99	3.60±0.11	1.30	3.71±0.12	1.75
	Dormitory	3.88±0.19	(.454)	3.65±0.17	(.399)	3.49±0.17	(.275)	3.63±0.20	(.159)
	Etc	4.21±0.14		3.74±0.13		3.44±0.13		3.72±0.14	
Economic status	High	4.31±0.21		3.85±0.18		3.72±0.18		3.97±0.21	
	Middle	4.08±0.04	1.69	3.79±0.04	0.48	3.62±0.04	0.30	3.85±0.05	0.25
	Low	4.31±0.14	(.188)	3.92±0.13	(.620)	3.70±0.13	(.743)	3.93±0.15	(.777)
Parents' marital status	Marriage	4.10±0.04	0.09	3.80±0.04	0.33	3.64±0.04	0.36	3.87±0.05	0.04
	Divorce	4.19±0.15	(.731)	3.73±0.14	(.719)	3.67±0.14	(.696)	3.83±0.16	(.964)
	Widowhood	4.19±0.16		3.89±0.14		3.52±0.14		3.84±0.16	

*p<.05

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에 대한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학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에서 학년($t=4.08, p=.04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적응은 인성($r=.540, p<.001$), 의사소통능력($r=.534, p<.001$) 그리고 대인관계능력($r=.41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Humanity,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and college adaptation

Variables	Humanity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Competence	College adaptation
	r(p)	r(p)	r(p)	r(p)
Humanity	1			
Communication skills	.736 ($<.001$)**	1		
Interpersonal Competence	.483 ($<.001$)**	.516 ($<.001$)**	1	
College adaptation	.540 ($<.001$)**	.534 ($<.001$)**	.410 ($<.001$)**	1

** $p<.01$

3.5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공차한계(Tolerance)는 0.423~ 0.711로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P)는 1.40 7~2.357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 선형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히스토그램과 회귀표준화 잔차 정규 P-P 도표를 분석한 결과, 45도 직선에 가까워 오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 분석의 가정이 만족되어 회귀모형은 타당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대상자의 대학적응에는 인성($\beta=.288, p=.002$), 의사소통능력($\beta=.248, p=.008$) 그리고 대인관계능력($\beta=.143, p=.04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성이 높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적응에 대한 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336로 이 모형의 설명력은 33.6%이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aptation

Variables	B	SE	β	t	p
	.962	.308		3.120	.002
Humanity	.295	.093	.288	3.158	.002
Communication skills	.287	.108	.248	2.664	.008
Interpersonal Competence	.165	.083	.143	1.983	.049
$R^2=.347, \text{Adj } R^2=.336, F=31.514, p<.001$					

Adj R^2 : Adjust r-squared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에게 필요한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에 대해 파악하고, 의료인인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의 간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성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는 4.11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 Son과 Shim [30]의 연구에서 평균점수(점수범위 1- 6점)가 4.62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Oh [31]의 연구에서 평균점수(점수 범위 1-6점) 4.6 8점, Jun과 Noh [32]의 연구에서는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가 3.49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겠다. 하지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33]의 연구에서 평균점수 3.06점이라 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도덕적 행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한다[34]. 특히 간호 대학생 간호교육에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인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3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점수(점수범

위 1-5점)는 3.8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Kim과 Park [16]의 연구에서 평균점수(점수범위 5점 만점)가 3.68점, Joung, Park, Kim, Lee와 Lim [35]의 연구에서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가 3.6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하지만 Lee, Jang, Lee와 Park [14]의 연구에서 대학생과 성인의 의사소통능력의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는 3.13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이 의사소통능력이 다소 높은 이유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간호 대학생이 습득하고 양성해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인 핵심역량이기 때문으로 [35] 생각된다. 따라서 환자치료와 간호, 보호자와의 상담과 교육, 다른 직종의 의료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간호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는 3.63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i, Son과 Shim [30]의 연구에서 평균점수 3.74점, Kwag [17]의 연구에서 보통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하지만 Jun과 Noh [32]의 연구에서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 3.40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이 환자와 보호자, 다양한 업무 직종의 의료인과의 대인관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간호교육과정에서 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서 대인관계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함으로 보건계열인 보건행정학과와 환경광학과 학생들보다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임상실습과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 다양한 직종과의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32] 간호교육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 적응 수준은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 3.87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5]의 연구에서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 3.43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 [36]의 연구에서 평균점수(점수범위 1-5점) 3.1 4점 그리고 Yoo [20]의 연구에서 평균점수 3.24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와의 이러한 차이는 본 대학의 학생진로를 위해 특화된 학

생상담 프로그램(The 키움시스템)을 통하여 본 간호학과에서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대학적응 및 진로를 위해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 대학생이 대학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학업을 충실히 이행한 후 간호사로서 진로 선택과도 직결된다 생각된다. 간호 교육 과정에서 전공관련 교육은 물론 학과 및 대학의 적응력을 향상을 위한 학교차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적용하여 [5] 학생들이 대학적응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oo [20]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서 학년, 거주형태, 경제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ee [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활적응과 유의한 차이 있는 것은 학업성적과 건강상태로 학업성적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대학 적응은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전반적인 호감을 갖은 것을 의미한다 [37].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관련 프로그램, 선후배와 같은 동급생들과도 관계형성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적응은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on [38]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경제적 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Lee [5]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학과만족도, 건강상태, Yoo [20]의 연구에서 학년, 주거형태, 경제수준,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와의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특히 학년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3, 4학년이 2학년에 비해 대학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 대상이 3,4학년으로 저학년과의 비교가 어려운 결과로 생각된다. 이에 향후 학년분포, 건강상태, 경제수준, 지각된 건강상태 등 일반적인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적응은 인성($r = .540$,

$p < .001$), 의사소통능력($r = .534$, $p < .001$) 그리고 대인관계능력($r = .410$,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32]에서 인성($r = .62$, $p < .001$), 대인관계($r = .80$, $p < .001$)는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적응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한 Park과 Kim [39]의 연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양의 상관관계를 Lim [40]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임을 확인하였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41]에서 의사소통능력($r = .64$, $p < .001$)은 대학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같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있으며, 이들 변수의 증진은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관련성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beta = .288$, $p = .002$), 의사소통능력($\beta = .248$, $p = .008$), 대인관계능력($\beta = .143$, $p = .049$)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인성이 높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적응을 잘하며[39], 남자간호대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38]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대학생의 인성,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이 확인된 Jun과 Noh [32]의 연구와 일반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Son [41]의 연구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맥락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적응은 학업, 인간관계, 환경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구축해 나가야 할 대인관계는 대학적응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바른 인성을 토대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각종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원만한 인관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학과는 다른 전공에 비해 실습과 이론이라는 학업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부방법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독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간호학과 대학생의 대학적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대학적응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회귀모형에서 대학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성,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의 대학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1학년 신입생때 부터 4학년 졸업 때까지 바른 인성,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맞는 활용 가능한 여러 변수들을 적용 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간호 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임상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및 타 직종의 직원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지역사회의 간호학과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 대학생 전체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지역의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적응 수준을 비교하며, 다양한 스트레스로 대학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학업적 부담감과 국가시험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중도 탈락을 줄이고 대학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며,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간호 대학생을 위한 공동체 기반의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M. H. Kim, K. G. Kim, M. J. Kang, H. J. Park, Y. H. Jang, "The effects of a community-based university life adaptation support program on student competencie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Journal of Teaching & Learning Research*, Vol. 16, No. 2, pp. 45-76, 2023.
DOI: <https://doi.org/10.23122/kactl.2023.16.2.003>
- [2] E. K. Kim,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m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2022.
- [3] W. S. Lee,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social

- withdrawal on satisfaction with life: with emphasis on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8, No. 3, pp. 75-108, 2018.
DOI: <http://dx.doi.org/10.15709/hswr.2018.38.3.75>
- [4] D. L. Goffman, T. D. Gillian,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 on student’s satisfaction” ,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Vol. 4, No. 1, pp. 53-66, 2002.
- [5] M.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4, pp. 170-179,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4.170>
- [6] W. M. Chemomas, C. Shapiro,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0, No.1, pp.256-266, Nov. 2013.
DOI: <http://dx.doi.org/10.1515/ijnes-2012-0032>
- [7] J.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style positive psychological scale(KPPS) for college students” , Unpublished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2020.
- [8] E. Y. Kim, “The development of posttraumatic growth program for student nurses with traumatic experiences” , Unpublished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Pusan, Korea, 2020.
- [9] K. W. Son, S. H. Um,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haracter index of university students” ,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0, No. 52, pp. 199-252, 2019.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706>
- [10] B. J. J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Resilience, learning motivation, student eEngagement, and learning outcomes of undergraduate students- a focus on a small christian universities- Unpublishe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Seoul, Korea, 2022.
- [11] E. M. Park,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7, pp. 497-509,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7.497>
- [12] M. L. Heo, Y. M. Jang,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measurement tools for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Education*, Vol.25, No. 3, pp. 321-330, 2019.
- [13] S. M. Nam, J. S. Park, “Needs analysis for character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 12, No. 5, pp. 454-561,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jlcci.2019.19.5.545>
- [14] S. J. Lee, Y. K. J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 *Korean Educaiotnal Deveopment Institute*, 2023.
- [15] S. J. Park, B. J. Park,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1, No. 4, pp. 312-322, 2013.
- [16] S. E. Jang, S. Y. Kim, N. H. Park, “Factors influencing metacognition, communication skills, and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4, pp. 448-458,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448>
- [17] Y. K. Kwag,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 igece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5, pp.251-258, 2021.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5.251>
- [18] Y. S.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ysillogy class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 13, No. 3, pp. 2741-2756,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3.191>
- [19] I. H. Kim, “A study on the intermediation of person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 Unpublished dissertation, Jung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2018.
- [20] K. H. Yoo, “A study on th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Korean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4, No. 3, pp.269-278,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3.269>
- [21] E. J.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of a character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9, No. 3, pp. 81-108, 2017.
DOI: <http://dx.doi.org/10.19034/KAYW.2017.19.3.04>
- [22] S. J. Chung, H. S. Park, H. B. Choi, “Develo- pment of character education effect scale for college students:focused on sahmyoung university” , *Theology and Other Disciplines*, Vol. 23, No. 3, pp. 83-116, 2021.
- [23] S. M. Park, S. H. Huh,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humanity scale for adolescent” ,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1, No. 3, pp. 35-47, 2012.
- [24] L. Navran,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 *the family process*, Vol. 6, pp. 173-184, 1967.
- [25] E. H. Mo, “The development of marit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couple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skills” ,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 10, No. 2, pp. 45-73, 2002.
- [26] E. Y. Choi, “The effects of a communicati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4.

- [27] S. W. Park, J. H. Seol, S. M. Che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4, No. 4, pp. 723-738, 2017.
- [28] K. H. Kim, S. B.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Scale for University Freshme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0, No. 3, pp. 253-293, 2016.
- [29] J. W. Kim, "The effects of self-directedness on college adjustment through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22.
- [30] E. S. Ji, M. S. Son, K. K. Shim, "Association between a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6, No. 1, pp. 100-107, 2020.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20.26.1.100>
- [31] H. D. Kim, Y. J. Oh,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haracter, family strengths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4, No. 4, pp. 869-880, 2023.
DOI: <http://dx.doi.org/10.9728/dcs.2023.24.4.869>
- [32] M. J. Jun, E. K. Noh,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4, pp. 433-442,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4.433>
- [33] S. J. Kim,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 according to character levels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Vol. 23, No. 2, pp. 1-19, 2016.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6.23.2.1>
- [34] Y. S. Lee, H. Y. Kang, S. J.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1, No. 0, pp. 261-282, 2013.
- [35] W. J. Joung, E. B. Park, R. H. Kim, W. J. Lee, J. S. Lim,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steem on Self-Leadership",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24, No. 2, pp. 49-57, 2020.
DOI: <https://doi.org/10.38083/JKNS.24.2.202008.049>
- [36] H. Y. Jo,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department, university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5, pp. 250-259,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5.250>
- [37] R. W. Baker, B. St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31, No.2, pp.179-189, 1984.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31.2.179>
- [38] H. J. Won,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9, No. 1, pp. 123-131, 2015.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5.9.1.123>
- [39] M. Park, J. H. Kim "The influence of gender-friendly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male nursing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4 pp. 357-365,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4.357>
- [40] M. H. Lim,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9, No.9 pp. 225-23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25>
- [41] J. Y. Song,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8, No.12 pp.335-345, Dec.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35>

반 선 화(Seon-Hwa Ban)

[정회원]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21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2021년 2월 : 창원시 진해보건소, 부산시 해운대구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 2021년 9월 ~ 2023년 2월 :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담당 보건의료연구원
- 2021년 3월 ~ 8월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3년 2월 ~ 현재 :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 아동, 지역사회간호학

배 두 이(Du-Yi Bae)

[정회원]



- 2003년 2월 : 동아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박사)
- 1996년 2월 ~ 2010년 10월 : 동아대학교 병원
- 2010년 9월 ~ 2015년 2월 : 진주보건대학교 조교수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동의과학대학교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학, 노인 인지, 학상상담진로지도

장 경 오(Koung-Oh Chang)

[정회원]



- 2003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1년 6월 ~ 1995년 10월 : 경상대학교병원 근무
- 1996년 10월 ~ 2012년 2월 : 양산시, 진주시보건소 공무원
- 2013년 3월 ~ 2014년 1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노인건강간호, 정신건강간호